

[16] 열녀권씨부인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1구

우리 동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열녀문!

평상시에는 그저 누군가가 수절을 하였나 보더라고 생각할 뿐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활을 보냈는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국어 숙제로서 인물 조사라는 것이 있어 할 수 없이 조사하기로 하였다.

혼자는 좀 삭스러울 것 같아 순규와 함께 가기로 했다.

처음 그 분을 찾았으나 뵈지 못했다. 무엇이 그리 바쁘신지 통 뵈 수가 없기 때문이다. 3번째로 저녁도 먹지 않고 달려가다시피 하여 간신히 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쭙야 할지 몰라 고민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가만히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모양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정말 난처했다. 마음을 안정시킨 후 간신히 서두를 꺼내 말문을 열었다.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부인께서는 안동 권씨 성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15세 그 당시 참판을 지내시는 이 정렬씨의 덕으로 시집을 오셨다. 그때 남편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았다. 13세의 어린 꼬마 신랑을 데리고 살아야만 하는 크나큰 길이 부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TV에서 상연된 '꽃가마'를 상기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어린 신랑을 모셔야만 했으니, 정말 그 당시 여자의 고초란 말이 아니었다.

권씨 부인께서는 혼례를 올린지 석달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득한 일을 겪게 되었다. 남편이 별세를 한 것이다. 남편의 죽음은 곧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니 15세의 여자로서 겪어야 하는 외로움은 그 무엇도 채워 줄 수 없었다.

그 당시 권씨 부인의 시아버지께서는 참판을 지내셨기 때문에 가사에 대해서는 궁핍하거나 쪼들릴 것은 없었으나 객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좀 있었다. 집 대문 밖을 나가 본 일이 없는 부인께서는 일생을 남편만을 생각하며 절개를 지켰다고 한다.

80여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절개를 지키며 외롭고 고독에 찬 나날을 보내온 부인에게 같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아낌없는 경의를 표해 보며 세월은 흘러도 한국 여성의 숭고한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다시금 느껴본다.

[17] 열녀 민씨부인

이조에 접어들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런 장군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열녀도 많았다. 그중 열녀가 많이 나온 곳이 아산만 주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유는 한양에 가깝고 가장 자연적인 항만이기에 싸움은 이 곳에서 시작되고, 몰려도 이 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검탈을 당하는 아낙들은 수절을 해왔다. 인주면 해암리에 있는 민씨도 그러한 아낙 중의 하나이다.

민씨는 이 몽학의 난을 보기 좋게 홍주에서 진압한 목사 홍 가신의 손자 홍 우기의 아내로 시집을 왔다.

홍우기는 무신 집안의 자손답게 패기와 용기와 지혜가 있었다. 민씨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내조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 가고 있었다.

때는 청이 우리 나라를 침범해 그야말로 우리 나라는 청의 손아귀에 잡혀 마구 짓밟히고 있었다. 청나라 군사들은 마치 제 세상인 양 행패를 부렸다. 느닷없이 한 초가집에 들어가서는 "술, 술을 가져와, 돼지도 잡고 한상 신나게 차려라." 하면서 창을 휘두르며 겁을 주었다. 난리 중이라서 한 끼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판국에 어디서 쌀이 나오고 돼지가 나온단 말인가!

머리를 땅에 닿도록 굽히며 백성은 애원한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하루의 양식도 없습니다. 저 어린 것들은 배가 고파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야, 이놈아,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어디가서 주워 오든지 훔쳐 오든지 여하튼간에 준비해" 하면서 백성을 발길로 찼다. 저만큼 나가 떨어지는 백성의 입가에 피가 주르르 흘렀다.

이 때 방에서 떨고 있던 부인과 아이들이 뛰쳐나오며 "나를 죽여라"하는 울음 섞인 소리가 진동했다.

"흐흐흐, 정 그렇다면" "악" 부인의 목이 잘린다. "너희들도 당장에" "잠깐만요, 저기에 있는 부자집으로 가 보세요. 이 동리에서 먹을 것이 제일 많아요. 흥 우기 나리 덕이에요." "뭣이? 흥 우기? 음 제대로 찾았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살릴 수가 없다. 내 화풀이를 해야지." 온 가족이 일순간에 죽음을 당하고 장독과 세간살이 등이 모두 망가져 버렸다. 누구의 고자질이었는지 흥 우기가 청나라 오랑캐들을 무찌르기 위한 북벌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흥 우기를 내놓으라고 고향을 질렀다. 그러나 북벌계획에 바쁜 흥 우기는 집에 있을리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한들 순순히 내놓겠는가? 이에 청나라 군사들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마당에서 방으로, 부엌으로 뛰어다니며 마구 부수고 때리고 고향을 질렀다. 그러나 집안엔 내다보는 사람 하나 없었다. 어디에서 달달 떨고 있는지

"무슨 일이냐?" 참다 못한 민씨가 방문을 열어젖히며 말했다. 청 군사들은 빙그레 웃으며 "흥 우기를 잡으러 왔다. 어서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이 집 모두가 없어질 줄 알아라." 민씨는 꾸짖었다. "네 이놈들, 감히 어느 나라에 들어와 행패인고? 네 나라에는 이렇게 하라는 법도 있다더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청나라 군사들은 열이 올랐다. 품위가 외모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민씨에게 감히 칼을 들이댈 수가 없었다. 그들은 민씨의 웃을 찢었다. 창피를 주려는 것이다. 민씨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몇 명의 군사들의 손을 물리칠 재간이 없었다. 그들이 민씨의 몸에 손을 대었다.

민씨는 비상한 각오를 했다. "내 아무리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쳐 봤댔자 이미 깨끗지 못한 몸이요, 어떻게 그 분을 대할 수가 있겠는가! 내 차라리 이 몸을" 하고는 은장도를 꺼냈다. 은장도를 가슴에 대고 잘라내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 아낙들의 굳은 절개에 청나라 군사들은 슬금슬금 도망하기 시작했다. 민씨 부인은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한국의 열녀답게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죽음으로써 항전했고, 민씨 부인처럼 절개를 지키는 아낙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젊은 여성들도 이 가정 이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야 하겠다.

[17] 열녀 배씨부인

마당에는 하얗게 눈만 쌓이고 있다. 온통 칠흑같은 겨울 밤, 오늘도 시부모님의 방문에서 빛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탕약만큼은"

삼베 보자기에 짜는 약, 사발에 주르르 받힌 약, 또 한번 여인네는 눈빛을 흐린다.

여인은 경주 배씨였다. 충청도 면천 고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용모가 단정했고 예의 범절이 출중하여 비록 남매간이라 할지라도 마주 보는 일이 없었다. 게다가 부모에의 효성 또한 지극했으니 고을에서는 칭찬이 자자했다. 그렇게 나이가 찬 배씨는 이웃 마을 평강리에 사는 하 수인이라는 청년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혼인 후에도 시부모에의 효성이며 동기간 우애도 또한 소홀히 아니 하였으니 "미약하나마 내 힘으로 이 하씨 집안을 일으키리라!" 함이었다.

하루 일거리와의 싸움에서 집에 돌아오면 남편 수인의 글 읽는 소리에 몸을 풀고 시부모님들을 공양하며 배씨는 익숙치 못한 신혼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행복은 무한히 뻗힐 수는 없는가 보다. 수인이 신혼 몇 달 후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던 것이다.

"애! 아가야!"

시부모님의 부름에 배씨는 흥칫 눈물을 지웠다. 짜낸 탕약을 들고 문고리를 잡았다.

"제발 이번만큼은....." 병에 괴로와하는 아들때문에 시부모 역시 아직 잠을 이룰 수 없었나 보다.

"만일 아들놈이 죽어, 며느리가 청상이 된다면....." 배씨는 눈물로 매일 밤을 지냈다. 온갖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하여 간호하였다. 그러나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은 과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점점 초조해 졌다.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남편이 소생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차라리 제가 당신

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 오! 하늘이여."

밤마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했다. 그러나 누구도 수인을 병마로부터 구하질 못했다.

마침내 남편의 생명이 위급해지자 배씨는 주저않고 손가락을 물어 끊어 남편의 입에 흘려넣으니 남편은 다시 소생했으나 겨우 이틀을 연장했을 뿐이었다.

남편의 운명 앞에서 배씨는 그 뒤를 따르고자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통곡하여 기운이 다해 쓰러지니 그 모양을 보는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가운이 불행하여 자식이 요절하였는데 며느리마저 죽으려 하다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없어짐이 마땅 하리라." 하고 그의 시부모가 타이르니 배씨가 기운을 차려 일어나 앉아 말하되,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거늘 제 어찌 차마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마친 후 조석으로 남편의 상청에 나아가 통곡하고 남편에게 못다한 열을 효로써 부모에게 바치니 그 효행에 온 고을 사람들이 탄복하여 집안에서는 안심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결국 독약을 마시고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르니 때는 1874년 음력 5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7일만이었다. 천하의 열녀이며 효부인 배씨의 죽음에 온 고을 사람들은 눈물겨워 하였다. 그리하여 평강리 마을의 좌상인 김 흥서 등 27명이 관가에 열녀 표창을 상신하기에 이르렀고, 그 곳을 지나던 정승에게, 그리고 그곳에 왔던 암행어사에게 고을 사람들이 포상을 건의하였으나 나라의 형편이 어지러운 시기이라 포상을 내리지 않았다.

그 후에 하 수인의 유가족은 아산 고을의 운정리(지금의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다.

아산 고을에서도 역시 암행어사 및 아산 현감에게 열녀 배씨의 포상을 건의하였으나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세월은 흘러 만 16년 되던 1890년 3월 10일 하 수인의 종이었던 복득은 상감마마께 올리는 진정서를 품고 한양으로 올라가 고종 임금이 거동하시는 기회를 살폈다.

"이번 상서만큼은 꼭..... 주인 마님의 열과 효는 세상에 알려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

어가가 멀리 보였다. 창을 든 호위병들, 그는 죽음을 무릎쓰고 징을 치며 어가 앞으로 달려 나갔다. 군사들의 창 밑에서 눈물로 임금님께 진정서를 올리니 임금은 이 진정서를 동부승지 이 중하에게 내려 포상을 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게 되었고 예조에서는 아산 현감으로 하여금 목수, 경비, 재목 일체를 담당. [열녀 경주 배씨 정려]를 건립하도록 하여 1891년 3월 21일 상량식을 거행하니 오가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그 후 그의 유가족에게는 세금과 잡부금 징수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한다.

열녀 경주 배씨의 가락한 뜻은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넋을 후세에 기리기 위한 고을민과 유가족의 노력 또한 그에 못지 않은 듯싶다.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2구 남녀를 합장한 묘옆에 정문은 자리하고 있다. 고운, 그러나 약간은 퇴색한 듯한 정문의 현판을 바라보며 그의 자손인 84세의 하노인은 담담히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 분들은 내 실제 큰 아버지, 큰 어머님이었던 거여(하 노인은 양자로 들어갔다고 한다.) 참, 천하의 열녀였지..." 말 끝을 잇지 못하는 그를 보며 나 또한 어느 사인지 그녀의 효와 열에 깊이 빠져들고만 있었다. 현대 세계의 쉽게 이어지고 쉽게 끊어지는 부부관계, 열녀 배씨를 생각하면 차마 그리하지 못할 것이다. 옛 여인들의 정조와 지아비에 대한 지극한 섬김, 지금의 그 누구도 그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의 효와 열이 더욱 더 가슴 가까이 다가온다.

[18] 열녀 신씨부인

영인면 아산리 2구에 열녀 신씨의 정려비가 있다.

조선 현종 무신 가어 신술 팔월이라는 연대를 밝히고 있는 이 조그마한 비석앞에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 가고 형체만 남아 있는 정려로부터 피보다 진한 우리 여인들의 고귀한 정신이 또다시 나의 가슴을 적셔준다.

열녀 신씨의 본관은 평산이다. 그녀는 관리로 있던, 고 세진의 아내로 어릴때부터 성격이 유순하고 영특하였으며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착한 사람으로 알려 왔다. 출가한 후에도 용모 단정하고 부지런하였으며, 시부모님 섬기기를 효도로 하였고, 집안의 화목에 정성을 다 하였다.

언제나 하인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니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 집안의 행복이 날로 더 하더니, 신도 그들의 행복에 시샘을 느꼈는지 흥진비래라는 말이 들어맞기라도 하듯이, 남편이 얼마가지 알아서 시름시름 앓더니 끝내는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워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신씨는 남편 간호하기에 정성을 다하고 옷과 허리띠를 풀고 편안히 누운 일이 없을 뿐더러 식음을 거르는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신씨는 매일 밤 목욕재계하고 기도하기를

"천지신명이시여! 남편대신 저 아픔을 제게 주옵소서!" 라고 끝없이 원했으나 신씨의 정성도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보람없이 남편은 운명을 하였다.

남편의 시신을 영한 뒤에 신씨는 남편잃은 슬픔을 누르지 못하고 끝내는 모든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의 허리띠로 자신의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다. 그때 신씨의 나이 28살이었다.

집안 사람들이 자결한 신씨의 옷을 풀어 보니 신씨의 품속에는 몸을 보호하는 은장도를 품고 있었다. 그것을 본 집안 사람들이나 하인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얼굴을 가리며 통곡을 하며 애석해 했다.

고씨 문중 회의에서 신씨의 죽음을 가혹히 여기어 저승에서나마 이승에서 풀지못한 두사람의 정을 생각하여 남편과 같은 무덤에 합장을 해 주었다.

그 후에 암행어사가 아산지방을 순회할때 아산 고을에 선비들이 모여서 신씨의 사실을 어사에게 보고하니, 어사는 곧바로 서울에 계신 임금님께 아뢰어 열녀 정문을 세우게 되었다. 열녀 정문은 검은 기와 지붕을 올리고 붉은 기둥을 하였다.

신씨의 열녀 정문은 온 마을을 휘황 찬란하게 비취 주었다. 신씨가 이려하였고, 천생연분이라 하였듯이 신씨의 남편 세진 또한 효자로서 아산 고을에 살고 있는 고치중의 아들이었다. 고 치중의 아우 이름은 치관인데 치관은 아들 형제를 낳았다. 세진이 큰 아들이었다. 현대 형님 치중이 아들이 없는지라 세진을 양자로 삼았던 것이다.

세진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독서를 매우 좋아 하였으며 남달리 효심이 강하며, 계모 훙씨가 병환이 들었을때도 세진을 자기의 손가락을 끊어 수일동안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키기까지 하였다.

그 남편의 그 아내라!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련만 연약한 젊은 여인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랐으니, 오! 그대는 열녀라!

그 공을 귀히 여기어 나라로부터 내린 열녀문을 짓고 그 넋을 위로하니 지금은 허물어져 보잘것 없는 지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곳에 담긴 그 거룩한 뜻은 길이 후손에게 잊혀지지 않고 남아 존재하리라!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에서 삼성리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그 열녀물은 수많은 세월 속에 차츰 전설처럼 묻혀가고 있으나 [열녀 평산 신씨 지려]라 씌어진 현판을 바라보매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감출 길 없다.

[19] 열녀 심씨부인

충남 아산군 둔포면 운용리 2구에는 신 광철씨의 부인인 청송 심씨의 열녀문이 세워져 있다.

심씨 부인은 미모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비단결같이 고울뿐만 아니라 효성도 지극하여 여성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여인이었다. 또한 중풍으로 누어 계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여 온 정성을 쏟아서 극진히 모시는 이러한 부인에 대해 남편인 신 광철씨는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항상 마음만은 행복하였다. 그러던 중 1637년 12월 즈음 병자호란이 일어나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였다. 이에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부인은 시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가야만 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가시면 며느리의 어려움이 클 것을 염려하여 며느리 혼자서 피난을 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심씨는 끝내 시아버지를 설득하여 등에 업고 경기도 여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피난처에서도 온갖 고생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쌀이 떨어지자 방앗간 주위에 가서 떨어져 있는 쌀을 주워 죽을 쑤어 드리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깎아 아버님의 시중을 들기에 정성을 다 하였다. 한 달 후에 마을에 돌아와 보니 오랑캐들의 노략질로 인하여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갈 길이 막연하기만 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이 느닷없이 돌아왔다.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억누르고 남편에게 왜 전쟁 중에 왔는가를 물어보았다. 남편은 아버님 병과 집안이 걱정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심씨는 남편에게 지금 모든 백성들이 오랑캐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이 난국에 승전도 없이 집안 일을 걱정하여 오시다니 말이 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집안이 있는 법이니 부디 가서서 용감히 싸워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말했다. 이같은 아내의 높은 애국 정신에 힘을 얻은 신 광철씨는 지체없이 적지로 돌아가 오랑캐를 무찌르고 승전을 하게 되어 "가선대부"의 벼슬을 받게 되었다.

한편, 시아버지께서는 병환이 더 하시어 수소문 끝에 공주에 용한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님의 약을 지으러 하룻밤을 세워 다녀오니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다. 정성을 다하여 모시었건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날을 슬픔과 눈물속에 지내었다.

그리고 심씨 부인은 정한수를 떠 놓고 이 나라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남편이 꼭 이겨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남편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심씨 부인은 인생의 무상함을 흐느껴 통곡하였다.

매서운 추위와 고난을 무릎쓰고 남편의 시신을 찾아 헤매었다. 그리하여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발은 동상에 걸려 뚱뚱 부어 올라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을 메고 약한 여인의 몸으로 고향으로 남편을 편히 모셨다.

심씨 부인은 인생의 덧없음을 원망하며 잠을 이루려는데 야심한 밤 갑자기 오랑캐가 심씨의 방을 침입하였다. 오랑캐는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자 깜짝 놀란 심씨는 기겁을 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오랑캐가 심씨의 손을 잡았다. 부인은 이 분항을 참지 못하고 항상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 오랑캐에게 잡혔던 손목을 자르고 숨졌다. 그러한 심씨 부인의 절개에 오랑캐는 뜨거운 참회와 조선 여인의 절개와 애국심을 가슴 속 깊이 느끼며 멀리 도망가고 말았다.

얼마 후에 이 나라는 다시 평정을 되찾고 심씨 부인의 소문은 인조대왕의 귀에 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인조대왕께서는 크게 감탄하여 "정결 숙부인"이란 칭호를 내려 주었다. 그리고 토지를 20만평 하사하였고 열녀문도 세워 심씨 부인의 정신을 길이 후손에게까지 빛을 남기도록 하셨다.

지금은 10대 후손인 신 억균씨가 관리하고 있는데 음력 10월 10일이면 모든 자손들이 함께 모여 향을 올리며 심씨 부인의 정신에 대해 어린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뿌듯한 감정과 한 아녀자의 애국정신과 효성에 코 끝이 찡해움을 느꼈다.

심씨 부인의 효성과 절개, 애국심은 널리 우리 고장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20] 열녀 이씨부인

효자 강 이기의 아우 이덕은 아산 땅에 살고 있던 선비였다. 그의 아내 이씨는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비록 가정이 빈한하였으나 행실이 뛰어난 현숙한 여인이었다. 강 이덕과 결혼한 후에는 옛날의 효부와 열녀에 관한 글과 시를 입에 암송하고 실천하여 현모양처로의 부덕

을 실행한 정숙한 부인이 되었다.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공경으로 남편을 내조하였으며 동서간에 화목하고 친척들을 잘 대우하여 이웃 마을에서도 효부 숙녀라 칭찬 하였다.

가운이 불행하여 을사년(현종 11년 1845년)에 그의 남편 강 이덕이 요절하니 이씨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가 강보에 싸여 있었고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복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의 유언과 부탁을 가슴에 새겨 눈물을 머금고 두 어린 것을 양육하여 강씨 집안의 후사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굳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에 마침 친정 어머니께서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배웅을 해 드리고 혼자 으스스한 시골 길을 걸어 돌아오는 도중에서 뜻하지 않은 괴한을 만나게 되었다. 그 놈은 이씨부인을 폭력으로 협박하면서 두 손목을 꼭 잡은채 강제로 욕을 보이려고 하였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씨는 능글하고 깨끗한 절개와 대쪽 같은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그 괴한을 꾸짖으며 이치를 따져서 쫓아 버리고 마침내 깨끗한 몸으로 돌아왔으나 더욱 분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그놈이 잡았던 손이 있어 치욕스럽다." 도끼를 들어 자기의 팔을 끊어버렸다.

열녀 이씨의 행실은 옛날 충의의 선비가 오랑캐의 뜰에서 굶하지 않고 꾸짖는 말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다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죽은 것과 같으니, 옛날과 지금이 비록 멀고 남녀가 다르지만 아울러 이름을 같이하여 마땅히 세상에 한가지로 역사에 남긴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아! 저 흉악한 무리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씨를 모함하니 고결한 행실과 특별한 절개를 가지고 어찌 구차스럽게 살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니 슬프다. 이씨여! 한번 죽으려면 마음은 이미 남편이 죽던 날에 맹세하였으나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하여 겨우 세월을 보내면서 목숨을 보전했던 것인데 두 어린 것을 돌보지 않고 몸을 깨끗히 하여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순결을 결의했으니 이 어찌 "열녀 불경이부"의 귀절을 실천함이 아니겠는가?

이와같은 이씨 부인의 행실에 감동이 된 충청도 선비들은 이 두순을 대표로 하여 철종 10년(1859)에 나라에 진정서를 올렸다. 때마침 철종대왕이 지방 순시를 하는 기회에 이 두순 등의 선비들은 이씨 부인의 사적을 기록한 글을 직접 임금님께 올려서 결국 열녀 정문을 세우도록 어명을 내리게 되었고 정문을 세울 때에 제목과 목수는 모두 관가에서 부달하는 동시에 그 자손들에게는 모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지금도 인주면 도흥리 2구에 그의 정절을 기리는 정려가 오가는 사람들과 오늘까지 살아온 이웃분들에게 말없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으며, 보고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고 있다.

[21] 열녀 정씨부인

현대의 물질 문명속에 파묻혀 거의 잊혀져가는 옛 선인의 이야기를 찾아 충남 아산군 음봉면 산동리 3구에 있는 정문을 들어섰다.

언제 건립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비각 안에는 "열녀금승훈량사헌부감찰심해처정씨지려" 이라고 새겨진 큰 비석이 있었다.

비각과 비석에 새겨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열녀 정씨의 12세손이 된다는 심 은소씨를 찾았다.

때는 선조 30년, 정유년 서기 1597년 봄에 왜적이 다시 쳐들어오니 임진왜란을 겪은지 6년만이다. 이를 일컬어 정유재란이라 하니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이 다시 왜적의 발굽에 밟히게 되었다.

방안에는 등잔불이 가물거리고 아랫목에는 어린 아들 광염이가 천진스럽게 잠을 자고 있다. 광염의 부모님은 서로 말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위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이윽고 침묵을 깨고 남편 심계는 부인 정씨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말문을 열었다.

"어보....." 부인 정씨는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쳐다본다.

부인을 불러놓고 다음 말을 잊지 못하는 심계는 말없이 다시 등잔불만 쳐다보고 있다. 부인 정씨는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알고 있다. 날이 밝아 오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선으로 달려 가서 왜적과 싸워야 하는 남편이다. 분명히 광염이를 부탁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남편의 마음을 읽고 있는 부인으로서 남편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전에 먼저 말을 꺼내어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안심하고 전선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으리, 염려하지 마세요. 광염이때문에 불안하시겠지만 아무 염려 마시고 전선으로 떠나세요. 나으리가 전선으로 떠나시면 저는 광염이를 데리고 전라도 영광에 있는 재종 시숙에게 잠시 의탁하였다가 나으리가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할때 기쁜 마음으로 나으리를 맞이 하겠사오니 아무 염려 하지 마시고 나으리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왜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보..... 미안하오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으니 부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오마는 이 일은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오니 우리 함께 참고 또 참아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 나갑시다. 다만 내가 부인에게 부탁이 있으니 들어주기 바라오. 사나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는 마당에 어찌 집안 일을 걱정하겠오. 다만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이오니 부인은 부디 몸조심하시고 광염이를 잘 키워서 우리 가문에 대를 잇게 해 주기 바라오."

심게는 부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바라본다. 부인도 남편의 눈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벌써 먼동이 트고 새 날이 밝아왔다. 복이네는 아침 준비를 하기 위해 바쁘게 부엌을 드나들고 있었다.

아침밥을 먹는 동 마는 동 마치고 심게는 전선으로 부인 정씨는 여중 복이네를 데리고 해변가로 나갔다.

때마침 많은 사람들이 피난 길을 해변가로 떠나려고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 사대부집 젊은 부인들이 한 척의 배를 준비하고 왜적의 손이 미치지 못한 전라도 땅으로 떠나는지 사공에게 이야기하고 배삯을 후히 준 뒤 함께 떠나게 되었다.

배에는 정씨부인과 같이 친척을 찾아 가거나 부모형제를 찾아 피난가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었고 왜적에게 발각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숨소리마저도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돌았다.

배는 어둠 속을 가르며 아무 일 없이 잔잔한 바닷물을 서서히 가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동녘 하늘에는 흰달이 보이더니 어느새 달은 중천에 높이솟아 구름 사이로 숨박꼭질을 사고 뱃전을 두드리는 뱃전만의 파도 소리만이 적만한 분위기를 달래줄 뿐, 누구 하나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고 온 가정과 전선으로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무사히 목적지에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찬 이슬에 젖은 머리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피곤한 눈을 잠시 붙여 본다. 잠시 눈을 붙였는가 했는데 어느새 동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또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이었다. 아침의 해와 함께 사람들은 끼니를 거를 수 없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았다. 그러나 급하게 온 피난이라서 먹을 것이 라곤 주먹밥과 감자 찐 것뿐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위로하며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아침 조반을 마쳤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또다시 어제 밤에 보던 달이 떠올랐다. 정씨 부인과 복이네는 환한 달빛을 바라보며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와 전과 같이 오손도손 애기 도련님과 함께 살기를 기원했다.

또 다시 찾아온 아침, 또 저녁, 그리고 또 아침,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영광 지방은 아직 멀리 있었다.

"복이네"

"예, 마님"

"복이네는 사공에게 가서 이 곳이 어디쯤인지 알아 보고 오게."

"예, 마님"

잠시 후 복이네는 정씨 부인에게 와서 이렇게 고한다.

"마님 이 곳은 칠산 앞바다라 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영광까진 얼마나 남았을까?" 정씨 부인은 걱정의 빛으로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배 안이 시끄러웠다.

웬일일까? 복이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갔다. 그리고 잠시 후

"마님 왜적의 배가 우리 배를 에워 싸고 있어요. 어떡해요 마님" 복이네의 그런 말이 정

씨 부인의 두뇌를 스쳐 지나간 얼마 후 정씨 부인은 깜짝 놀랐다. 벌써 왜적의 배가 정씨 부인과 그 일행이 탄 배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왜적의 배는 점점 가까워지고 왜적들은 큰소리를 지르며 무어라고 떠들고 있다. 왜적들은 이 작은 배에 젊은 부녀자들이만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어이하랴! 조그마한 목선이 어찌 군함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거리는 점점 가까워져 이제는 왜적의 웃음소리와 말소리도 똑똑하게 들을 수 있는 거리로 좁혀졌다. 배에 타고 있는 여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며 천지신명께 빌었지만 사태는 점점 긴박하여질 뿐, 배 안에 타고 있는 여인들을 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적들은 이 작은 목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여인들인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빨리 침공해 오면서 기쁨의 고성을 지르며 쏘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 때에 정씨 부인은 침착하게 뱃머리에 나서서 배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 배를 타고 피난길을 떠난 것은 장차 난리가 평정이 되면 그림던 고향과 가족들을 만나서 옛 일을 회상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고 이젠 화가 목전에 임하였으니 욕을 당하고 사는 것보다 절개를 지켜서 죽은 이만 같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데리고 가던 여중 복이네를 불렀다.

"복이네"

"예, 마님"

"너와 나는 비록 신분이 다른 주종간이지만 어려서부터 너와 나는 형제와 같이 생활해 왔다. 그러나 이제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너는 살아서 나오리를 만나서 우리 광염이를 전해 주기 바란다."

"마님, 어인 말씀이세요....."

"복이네, 우리 집 혈맥은 이 아이뿐이니 너는 이 아이를 정성껏 길러서 우리 가문에 대를 잇게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할 것은 광염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어미의 죽음을 알려 주기 바란다."

"마님, 고정하십시오."

정씨 부인을 품안에서 젖먹이 세 살된 아기를 내어주며 복이네를 잠시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복이네는 눈물이 앞을 가리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님이 건네준 아기 도련님을 품에 안았다.

정씨 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천지신명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원한 후에 태연히 바닷물에 몸을 던지니 같은 배에 타고 왔던 많은 사대부집 부인들도 마음이 감동하여 차례로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켰으니, 아! 장하도다. 이 나라의 여인들이여! 천고에 드문 일이요 자손 만대에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이로다.

그 날이 바로 정유년 서기 1597년 9월 27일이었다.

그 후 복이네는 천우신조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정성껏 양육한 아이가 그 후에 승훈량 사헌부감찰의 벼슬에 올랐고 그 후손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살고 있다.

세월은 흐르고 역사는 바뀌어 정유재란도 38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본인들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라는 식민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우리 민족들은 결국 36년 동안을 핍박속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천우신조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으니 아! 어찌 이날을 잊으랴. 36년간의 고통과 8·15의 감격을! 그러나 37년이 지난 오늘 일본인 제국주의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으랴!

우리들의 선조는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버렸고 부녀자들은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초개같이 바쳤으니 후손인 우리들이 따라야 하고 가야할 길은 분명하여, 두 말해 무엇하랴!

독립기념관이 세워질 흑산성을 바라보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빌어 본다. "영령들이시여! 이 후손들이 원한을 풀고 복되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21] 열녀 정씨부인

이 열녀 정문은 아산군 신창면 신달리 1구에 자리잡고 있다.

영조때의 선략 장군이요 선전관을 지낸 해주오공 도빈의 부인 정 영인여사의 덕행을 거린 정문이다.

정씨는 1649년(인조 27)에 출생하시어 어려서부터 유순하고 착하게 자랐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여 동네 어른들께서 칭찬이 자자했다. 정씨가 점점 자라 출가할 나이가 차니 이웃 동네인 감나무골 싸리나무골에서까지 소문이 뻗치니 여기저기에서 혼처가 빗발치게 드나드는데 정씨의 괴로움은 날로 더해만 갔다. 어찌 부모님 곁을 떠나 출가할 수 있겠느냐며 극구 반대했으나 날이 갈수록 부모님께서 노심초사하시니 부모님의 걱정을 놓게 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혼처를 정한 맥이 감나무골 오공댁으로 정했다. 남편인 오 도빈의 아버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어 홀어머니 밑에서 애지중지 자란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은 눈에 거슬릴 정도였다. 시댁 식구는 시동생, 고모, 시아주버님 등 합하여 열이 넘었다. 영인은 친정에서 단 세식구만 오בות하게 지내다가 엄청난 시댁으로 들어오니 앞날이 캄캄했다. 남편인 도빈은 첫 날밤에만 보았을 뿐 그 다음 날부터는 거처를 다른 데로 옮겨 갔다. 큰 일을 할 사내대장부가 어찌 사적인 일에 얽매일 수 있느냐는 시어머니의 방침이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아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시대이니까..... 결혼 초부터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싸늘한 주검속에서 독수공방을 지켜야 하니..... 이로부터 정씨의 고된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말이 열 식구가 넘지, 어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정씨는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봉사 3년이라는 속된 말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다. 싸늘한 동짓날에 아침의 정적을 깨는 새벽 닭소리에 언제나 같이 일어나 아침을 지어야 하고 만일 소란을 피워 시댁 식구 중에 깨는 사람이 있으면 물골을 면치 못하는 가련한 신세였다. 엄동설한 추운 겨울 부엌에서 누른 밥과 간장으로 시장기를 때우고 흑시 시댁 식구들이 먹다 남긴 생선 꼬리나 먹어야 하다니..... 그 많은 재산과 쌀들은 언제 먹을려고 광에다 모셔 두는 것인지 정씨는 신세만 한탄하되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시댁 식구 중에 누구하나 정씨를 돕는 일이 없이 산더미같이 쌓인 빨래를 시작한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나고 발은 동상에 걸려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지만 허리가 굽어져라 빨래를 하고 나면 몸은 가루가 되는 것같은 고통과 아픔을 혼자서 이겨내야 하니 정씨의 몸은 날로 허약해져만 갔다. 그러던 추운 겨울의 어느 날 밤에 시어머니께서 혼인 집에 가신다고 한복을 지으라고 하시어 밤잠 한 잠도 못 자고 만든 탓으로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나 급하게 아침을 짓느라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부엌에 이르다가 그만 얼음위에서 발을 헛디디어 넘어지고 말았다. 이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에 정신이 들어 주위를 살피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어디에다 빼놓고 다닌다더냐? 어디 아녀자의 몸으로 이다지도 방정맞단 말이야?" 이같이 뇌성벽력이 떨어지셨다. 물동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손과 무릎에선 피가 나고 팔뚝은 뻐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고양이 앞의 쥐처럼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다시 물을 길어다 밥을 짓는데 조리질도 못할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왼손으로 조리질을 해야만 했다. 성의껏 잘 지어서 진지상을 갖다 바치고 부엌에 있으려니까 이게 웬 청천의 벽력이더냐 "네 이년 시에미 밥 먹는 것이 그렇게도 아깝다더냐? 눈이 멀었느냐, 손이 빠졌느냐? 그래 쌀을 손으로 일었느냐, 발로 일었느냐, 시에미 이빨 튼튼한게 탐나더냐? 그리고 장맛이 이게 뭐냐 우리 집 장맛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꿀맛인데 똥맛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몰래 친정에다 퍼 주고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더냐? 이 년! 난 너같은 며느리 둔적 없다. 냉큼 이 집에서 나가라." 정씨는 백 번 사죄를 하며 바른 말 한 마디 못하고 호랑이 앞의 토끼처럼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또 빌어서 간신히 용서를 받았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정씨의 팔이 빠졌던 것이다. 살이 에이는 듯한 통증을 눈물로 지세웠던 것이다.

달과 해가 바뀌어 어느덧 내일이 친정 아버님 환갑이신데 자식된 도리로 살아 있으면서 가 뵙지 못하는 정씨의 괴로움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같이 정씨가 독한 시집살이 한다는 소문은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졌다. 이 소리에 어찌할 수 없는 팔자를 한하시며 불쌍한 딸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뜻에서 알약으로 된 한약을 몰래 전해 주었다. 혹시 약을 다리다가 들킬까봐 알약으로 된 것을 지어다 주신 것이

다. 정씨는 "약을 받아 들고 가 뱃지도 못한 죄가 사무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하시며 한탄하였다.

세월이 흘러 남편 도빈은 과거에 급제하고 지위도 높아지는데 몸이 쇠약해져서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20년간이나 남편의 손목 한 번 잡아 본 적이 없는 정씨는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극진한 간호를 하는데도 남편은 날로 허약해지는 것이다. 시어머니께서는 정씨의 성의가 부족해서 아들이 더 약해졌다면서 살이 에이는 흑한에도 노령 백발의 시어머니의 3년간 병간호에 쇠약해 지셔서 옆친데 겹친 격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남편의 간호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는 정씨는 고달픔과 고통을 겪는 동안 몸은 날로 허약해졌다. 그러나 허약한 몸으로 미움을 갖다 드리면 시어머니께서는 "안 먹는다. 네가 네 년의 속을 모를 줄 알고? 내가 얼른 죽어야 네가 편하지. 그러니 나 이거 안 먹는다." 하시며 거절하시며 툭 채뜨리면 다시 해드려야 하는 고초도 심했다. 그러나 정씨는 시어머니께서 죽는다는 무덤앞에서 몸부림 치는 모습이 너무 가련하게 느껴져 더욱 더 성의를 다해 정성껏 간호해 드렸다. 마침내 1년간의 투병생활 후 마지막 말씀이었다.

"네가 못된 시에미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 하느라고 너의 모습이 몰골이 아니로구나. 마지막 떠나는 길에 내 아들을 부탁한다." 하시며 열쇠를 건네 주셨다. 그 뒤 3년상을 지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한 밥과 국물을 손수 갖다 바쳤다. 남편인 도빈은 6년의 길고 쓴 투병생활로 같은 해 세상을 떠나시니, 정씨는 이 속된 세상을 떠나시고 속세를 잊겠노라 하시며 순절하고자 하였으나 자손의 만류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나의 하늘이 무너졌으니 어찌 홀로 해와 달을 이루고 살 수 있으리오. 나의 평생의 한을 어느 곳에 하소연할 것인가?"라 탄식하셨다.

공이 사후에도 생시와 다름없이 봉선지절의 예를 다 하시고 1728년(영조 4년) 11월 19일 79세의 일기로 별세하셨다.

이와 같은 영인 여사의 뛰어난 정절에 크게 감동한 도내 열 읍 선비들이 뜻을 같이하여 이 열녀문을 세우도록 조정에 상소하여 1763년(영조 12년)에 특명이 내리어 이 정문을 세웠다한다.

일평생 부모에 효성하고 지아비 섬기기를 하늘같이 한 정 영인 여사의 효성을 10분지 1 이나마 본받는다면 현대에는 노인 복지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지 않았던 터인데..... 우리 꿈많은 여고생들은 정 영인 여사의 높으신 효성을 본받아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여 사랑받는 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짐해 본다.